

[주제 발표 I]

유치원 환경교육의 실천과 발전 방안

이경희(신길유치원 원장)

1. 유치원 환경교육의 필요성

유아교육의 장기적 목표는 기성세대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반복하는데서 나아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창조해내는 창의적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고하고, 비판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유아교육 활동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는 전인교육과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아는 인간됨의 교육, 즉 나 그리고 우리라는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삶을 익히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들은 생존적 필요에 의해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물질만능과 편리위주의 생활에 젖어 '나 하나 썩어야'하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 행동에 불감증이 걸려 있는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비판없이 그대로 모방, 반복하는 발달적 특징 또한 갖고 있다.

모든 발달 영역에서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가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환경을 대하는 어른들의 부정적 행동을 여과없이 모방,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주의와 편리위주의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편리하고 여유있는 생활 속에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태계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쾌적한 삶은 물론 생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 지금,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지라도 미래 환경의 주인인 유아들 스스로가 함께 공유하는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현재의 환경문제를 이해하며 미래의 환경을 준비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이해가 모든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올바른 가치관으로 확립되게 하고, 현재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바르게 인식되게 하며,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사고와 탐구능력이 활발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익히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유아기에 바람직한 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환경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때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환경보전의 문제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실천적 의지와 동기를 부단히 강화시켜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볼 때 초·중등에서의 환경교육에 비해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1) 교육효과의 기대가 크다.

인간의 탄생 이후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을 통하여 처음 받는 교육이 유치원 교육이며 유아들은 수용성, 가소성이 그 어느 시기에 비해 크다는 발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아기 이후에 받는 교육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빠른 습관화를 확립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 구체적으로 몸에 밴 습관은 성인이 된 후까지도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3) 배움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입시위주의 지식습득 교육이 아닌 기본 생활습관 위주의 전인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중등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교사 대 아동 간의 비율 및 감각을 통한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배움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4)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사회생활, 건강생활 등 5개 영역의 각 영역이 내용과 방법면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도될 수 있도록 초·중등에 비해 비교적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교육은 태도와 행동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김거곤, 1990; 남상준, 1992)을 고려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며 습관화된 것이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삶을 익히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유치원 환경교육의 문제점

환경의 문제는 이제 어느 대상, 장소, 여건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방송매체를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치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과정, 교사교육, 행·재정적 지원 등 그 어느 면에서의 활발한 노력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초·중등에 비해 교육과정과 교사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고 연구 또한 활발하지 못하며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유치원 현장에서는 '연구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또 유치원 자체의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교재·교구가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들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유치원 환경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원장 및 교사의 환경에 관한 인식 부족

원장, 교사 스스로 환경에 관한 무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 해결해 보려는 의지와 투철한 가치관 확립이 부족하다.

2) 유치원 교사의 잦은 이직 현상

유치원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주 바뀌는 교사들과 매번 반복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운영자가 철저한 실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자료와 방법 및 여건 부족

사회, 가정 그리고 상급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실천 운동들이 그대로 유치원에서 재연되는 것으로 유치원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방법 및 자료가 부족하며 현장교육을 위한 주변 여건이 성인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물론, 유아들에게는 개방적이지 못하다.

4) 교재·교구와 실생활과의 접목

교사들의 자체노력에 의해 교재·교구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또한 가정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재·교구를 사용하여 환경을 아는 것에 그치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우쳐 느끼고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5)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1) 유아교육은 초·중등과 달리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축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능력에 유치원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으며 나이가 어릴 수록 교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볼 때 기초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교육기관에 비해 그 지원은 너무나 부족하다.

(2) 국가정책의 혼돈으로 인하여 환경에 관한 유사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천 과정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이미 편리위주의 생활습성에 젖어있는 기성세대에게 기대하기 보다는 교육의 기초에서 있는 취학 이전의 단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초점이 그렇듯이 환경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적 배려도 고학년 층에 맞추어져 있어 기초교육에서는 환경교육에 관해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사회인식 조차도 이론에 치중될 뿐 현실적으로 무관심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유치원 현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괴리를 또한 절감하게 된다.

3. 유치원 환경교육의 실천과 발전방안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 1회 국제연합 인간 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인재양성은 이것이 개발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원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인력의 확보를 가능케하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환경정책의 장기적 성공의 핵심을 이루는 극히 중요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초적인 개념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조기 환경교육과 인재양성이 이루어져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가능한 방법으로 생활자체에 스며들어 생활중심 교육으로 무장되고 가정과 사회에 연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 환경교육에서의 문제점들을 토대로 유치원 환경교육의 실천과 발전방안을 언급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원장 및 교사의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철저한 의식개혁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긍지와 신념을 갖고 일관성 있는 환경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의 예를 든다면 학년초에 작성되는 유치원 교육계획안에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위한 연간교육안이 제시되듯이 환경교육에 대한 1년과정의 교육안이 (자체적이든 기본 생활습관에 용해되어지도록 하든)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부모교육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이 곧 유아교육은 아니다.

유아교육은 유치원, 가정, 사회교육이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유아에게 있어 부모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 없이 환경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유치원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그룹을 통한 부모 교육방법에 의지하기 보다는 중·소그룹 또는 개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모든 유치원에서는 1년에 부모를 위한 강연회 등의 대그룹 교육 1~2회, 참여수업 등의 중그룹 교육이 2~4회, 가정통신 등의 개별 교육이 주 1회씩 실시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부모를 위한 독자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연회, 참여수업, 가정통신, 개별 교육통신 등에 환경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3) 교재·교구가 현실과 접목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을 위해 제작된 교재·교구가 단순히 환경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거나, 흥미있는 게임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교재·교구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나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즉, 교구가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들에게 제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게임방법과 게임의 승자가 누구냐에 집착하게 되지 않도록 배틀짓는 과정에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4) 교육과정의 구체화 및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보전은 물론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파괴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한 자료 및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되어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5차 교육과정만 보아도 제 4차 교육과정에 비해 비교적 구체화되긴 했으나 사회, 건강, 탐구생활 영역에서 학교 환경교육내용의 9개 영역중 환경보전, 자연보존, 환경오염에 대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5)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사의 의식개혁과 잦은 이직이라는 유치원 현장의 특성상 한번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 교사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가 있다. 그 외에 각 교육청 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적 연수, 즉 장학지도, 영역별 연구회를 통한 이론적 접근, Work Shop 등의 구체적인 연수가 수시로 이루어져 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6) 다양한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발달의 특징을 고려해 감각을 통한 효과적인 이루어지도록 현장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는 방법과 개방적인 장소제공 등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견학장소의 대부분이 성인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견학요청은 거의 거절되고 있어 그리 많지 않은 장소마저도 현장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장소,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 등이 현장교육의 장소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견학을 도와주는 현장의 지도자들이 유아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7)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습관의 정착을 기대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고하는 유아들에게 논리적 사고의 형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무의식 중에 행동하게 되는 습관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웃어른께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지도되어야 하는 기본 생활습관처럼 교실에 분리수거함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즉, 환경오염에 대하여 유치원에서 지도되어야 할 것은 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 왜 일회용품 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원인과 과정의 교육보다는 무엇이 재활용되고 안되는 것인지 직접 분류해 보게 하는 경험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8)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지도되어야 한다.

자연을 보존함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함께 지도되어야 겠지만 파괴된 환경을 둘러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좋은 환경을 통해 유지시키는 방법에 비중을 두고 지도되어야 한다. 또한 파괴된 환경을 두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원인찾기 과정에서 환경을 그르친 어른들

의 부정적인 모습을 유아들에게 자주 비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9) 일관성있는 환경정책의 정착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의 안정된 정착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역할, 책임의 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이며 소신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유아들이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들이 담당기관을 찾아 이리저리 다녀야 한다거나 재활용품과 교환 물품이 맞바꾸어지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겠다.

10)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교사연수와 자료의 개발, 보급은 물론 환경교육이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근무여건 속에서 교사의 사명의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만족스런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른 기대를 할 수 없는 이 때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교사가 안정되고 소신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나라 현 유치원 전체에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높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유치원이 더러 있기도 하나 사립유치원에 의해 우리 나라 유치원이 유치원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왔고 그 발전은 거의 사립유치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적 측면에서의 모든 것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게 되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립을 막론하고, 또한 관할 행정기관을 막론하여 교육에 대한 가치관·철학관과 함께 철저한 의식개혁이 필요한 이때, 기초 환경교육이 현장에서 자리잡고 뿌리내려지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부여되게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도와 재정적 뒷받침이 어느 한쪽에 의존되기 보다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갖고 지역과 유치원, 유치원과 유치원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토론 I-1]

[주제 발표 I 에 대한 토론]

김광웅(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 서 론

환경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의 교육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의 교육이며, 기능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습관의 형성에 의한 행동의 교육이기 때문에 어린 시기의 교육일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유아기는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유아기가 결정적 시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아교육현실에서 환경교육은 아직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몇몇 뜻깊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특별히 고안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없이 일선 교사들에게만 그냥 맡겨져 있다.

최근에 수행된 환경교육 실태조사자료(김광웅, 허영자, 1993)에 의하면, 서울 소재 1079개 유치원의 주임 교사들 중 90.9%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34.4%만이 환경교육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는 “조금 부분적으로 언급”(59.5%)하고 있거나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6.1%)고 한다. 더우기 교사 자신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약간 알고 있다”(74.0%)거나 “별로 아는 바가 없다”(22.2%)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1.4%)는 교사도 있었다.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 이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2. 본 론

이제 환경교육은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다루는 전문교육도 아니고, 특정 집단이나 특정의 개인만이 소유해야하는 선택적인 교육이 아니다. 인간으로 살아 남으려면 누구나 다 소유해야 하는 생존의 지식이고 수단일 뿐이다. 생존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을 구비시키는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의 교육적 준비는 너무도 미흡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교육의 미흡성은 가장 강조해야 할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다.

1995년도부터 시행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각급 학교의 환경교육은 크게 강조되었다. 즉, 중등교육에서는 “환경”이 독립교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초등교육에서는 환경이 독립교과는 아니지만 3~6학년에게 환경교육을 위한 “학교재량”시간을 연간 34시간까지 늘리고, 이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였다(최돈형, 1993). 최근

몇 년 사이 대학에서도 교양과정에 “환경”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환경학과 및 환경문제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져 왔다(김광웅, 허영자, 1993).

환경교육에 대한 이러한 각급 학교의 가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 1995년부터 시행 적용된 유치원 교육과정에 보면 환경교육은 “사회생활”영역 21개 세부 내용 중 18번째 항목 “주변환경 보전하기”와 “탐구생활” 20개 세부 내용 중 6번째 항목 “주변 환경에 관심가지기”에 일차적인 근거를 두고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더러운 장소를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분리하여 버린다”,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알아본다”, “물을 더럽히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동식물 사는 곳을 알아보고 보호한다”는 등의 청결과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몇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유치원 환경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다. 환경교육이 특별히 강조되거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정책적 배려도 되어 있지 않다. 위의 유치원 환경교육 활동 내용 중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터 늘상하던 활동내용일 뿐이다. 물론,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교사들에게 자율적 재량권이 보다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특별한 의지와 배려에 의하여 얼마든지 충실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교사나 유치원의 개별적 사항이지 국가의 교육 정책적 사항은 아니다.

발표자의 지적과 같이 우리 유치원의 환경교육 여건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환경교육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부족,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결핍, 실생활과의 연계 부족, 행·재정적 지원의 결핍 등 환경교육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연구 논문이 몇 편 있을 뿐이다. 본 학회에서 93년도 학술대회 때 처음으로 유치원 환경교육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나라의 유아 환경교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972년 제 1회 국제연합환경회의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 지 23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환경교육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나라가 그 간 얼마나 철저한 “환경 후진국”이었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겠다.

3. 결 론

발표자가 제안한 9가지 발전방안은 유아교육에서 환경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제안임에 틀림없다.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선진국이 되려면 환경교육의 정책기조를 유아교육에 두어야 한다. 환경교육은 태도와 가치의 교육이고 습관과 행동의 교육이기 때문에 10세 이전 어린 시기의 교육에 의해서만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아환경교육의 실천에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개입이 요구된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어느 영역도 환경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에서도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한 전세계의 비난과 질타도 모두 환경의 문제 때문이다.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서는 인류의 과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짊어질 유아들을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환경 십자군”으로 길러내야만 우리 나라가 국가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교육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개인 차원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배려와 개입이 없으면, 아무 것도 실천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을 모두 환경 전문가로 만든다는 관점에서, 집중적이고 거국적인 환경 문제 연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제는 환경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이 “실천하는 환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환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즉시, 유아 교사에게 적절한 환경문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으로부터 일선 교사까지 모두 “환경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환경 장관”이, 대통령도 “환경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환경의 신앙자들이 탄생해야 우리는 “환경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넷째, 유아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자료의 제작, 그리고 유아 환경교육 연구에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의 환경교육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포함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과학을 넘어서는 인간의 지혜를 그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러한 보다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한국적 방법론이 탐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 노하우”를 수출하는 환경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환경 선진국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일등국민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을 통한 환경 노하우”는 입시와 발달 갈등으로 시달리는 10세 이후의 청소년교육에서 찾기는 대단히 어렵고, 10세 이전의 유아교육에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